



유 한 회 사 아 리 울 수 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십자들로 103-15 TEL : 063-443-3313 FAX : 063-443-3301

아리울수산의 창립자 박금옥 대표는 전업 주부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 오던 중, 2010년경 문득 고향 군산에 뚜렷한 특산품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생선 ** ‘박대’ **를 전국에 알리고, 나아가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결심한 박 대표는 5명의 직원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산면 (유)아리울수산 전경

사업 초기, 전국 각지를 돌며 수산물 가공 공장과 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박 대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을 직접 설계·시공하였고, 군산 최초로 냉풍건조기, 중량선별기, 진공포장기 등을 도입해 외부에서 말리던 생선을 실내 냉풍 시스템으로 위생적이고 품질 높게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기, 아귀, 민어, 홍어, 간재미, 우럭, 대구, 옥돔 등 다양한 생선을 가공했지만, 현재는 ‘박대’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박대살을 활용한 ‘박대 꾸이 스낵’, ‘박대 어묵’ 등 차별화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리울수산은 12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 그리고 ‘사랑해 황금박대’를 포함

한 10개의 상표 등록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약 20여 명의 전문 인력과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시장에도 꾸준히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손해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내실을 다진 끝에 지금은 박대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수산 가공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산 생선만을 고집하며 품질을 지켜온 아리울수산은 한때 근거 없는 허위 제보로 인해 1년여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소명과 철저한 품질 관리 덕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아 억울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였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후 홈쇼핑 입점에 성공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아리울수산은 국내외 박람회를 비롯하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입점, 신라호텔 납품, 국내 유통사 공급 확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등을 통해 박대를 전국적인 특산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 및 수상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 유망중소기업 선정
-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 유망강소기업 및 대표기업 선정
- 국무총리상
- 국세청장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다수의 표창

이와 더불어 박 대표는 다양한 지역사회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리울수산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

는 '구운 생선 제품'을 위한 가공 라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 복지물 납품 및 군납 계약을 위한 구이 전용 생산라인도 준비 중이며, 향후 즉석 가정간편식(HMR)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간 아리울수산은 박대를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군산의 특산물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기술과 정성,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아리울수산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수산물 가공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리울수산
(유)아리울수산

(유)아리울수산 제품